

연변의 역사와 기억, 그림에 담다

‘쇼홍쑤’·‘틱톡’ 등에 연변 역사이야기 올리고 고향을 홍보하는 강용씨

‘쇼홍쑤’(小红书)는 젊은 세대들의 생활방식 플랫폼으로 이곳에서는 진실하고 적극적이며 다차원적인 세상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체적인 생활방식과 개성으로 넘치는 많은 창작인들도 만나볼 수 있다. ‘쇼홍쑤’에는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연변교통’(画说延边交通)이라는 다소 이색적인 타이틀을 단 계정이 있는데 들어가보면 여러 시기의 시대적 분위기가 다분한 그림들로 흘러간 연변의 역사들을 펼쳐보여주면서 진한 향수와 함께 아름다운 연변 역사에 대한 진실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다.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어야 할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사라져가는 연변의 역사를 그림으로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강용씨는 사라진 것들을 복원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에서 그림으로 복원해 남기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또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저는 주로 이미 사라진 것과 한창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림 복원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씨는 그림을 복원함에 있어서 연변의 허다한 시대력 사적 배경으로 쓸만한 사진과 영상 자료가 매우 적다고 말한다.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연변 교통’은 연길시에 살고 있는 강용(48세)씨가 자신이 직접 창작한 그림들로 선보인 인터넷 발표 공간이다. 10여년간 강용은 많은 시간을 들여 연변의 교통 역사를 기록하였고 자신이 창작한 한폭한폭의 그림들을 통해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연변의 변화와 발전도 보여주었다.

3월 22일 오후, 강용씨와 취재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한아름이나 되는 그림원고들을 안고 나와있었다. 강용씨가 알심 들여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연길방직공장이며 연길백주공장, 연변대학 기숙사 등 우리들의 기억 속에 익숙한 듯하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풍경들이어서 더욱 소중한 가치 있어보였다. 그중에서도 강용씨가 오랜 시간을 품 들여 그렸다는 연길기차역 광장의 동일한 장소를 배경으로 그린 7폭의 세트 그림이 눈길을 끌었다.

그림마다 각 시대를 반영하는 기차역 대합실 건물과 역광장의 각종 교통 운수 도구,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옷차림과 사회분위기 등을 디테일하게 그려냈는데 그림 속에 흠뻑 빠져들어 시간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림 속 연길기차역 건물 모습만 봐도 연길기차역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한눈에 더듬어볼 수 있었으며 기차역 광장에 세워져있는 여러 시기의 교통도구들로 시대별 연변 교통의 변화와 발전까지 헤아려볼 수 있을 듯싶었다.



▲ 연길기차역 광장의 동일한 장소를 배경으로 그린 7폭의 세트 그림

이와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록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자신이 그 기록을 해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고 강용씨는 말했다. 강용씨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무관심한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알고 보면 이미 사라져버린 역사나 추억 속 건물들도 매우 재미있는 우리의 문화부호로 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계시와 계발을 줄 수 있다고 강용씨는 강조했다. 과거를 잘 알아야 현실은 물론 미래까지도 잘 가꿔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과거의 사라진 것들을 찾아나선 강용씨는 현장답사도 하고 사진 수집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진실한 역사기록을 그림에 담고자 노력했다. 도문시 태생인 강용씨의 그림들에는 그의 동년시절 추억이 담긴



▲ 그림 창작에 몰입하고 있는 강용

도문시의 기차역, 거리, 두만강변, 공신장, 도문철도의 괴뢰만주국시기의 주택 등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역사문화적 풍경들이 많다. 그외에도 강용씨는 룡정, 돈화, 왕청, 할바령, 유수전, 차조구, 동화사, 로두구 등 연변의 허다한 오래된 기차역들을 발품 들여 답사했으며 각종 기차역 및 철도에 관한 사진자료들만 해도 근 500 장이나 모았다.

강용씨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차번호가 아직 공백으로 남아있거나 길거리의 표어나 구호 같은 것이 채 쓰여지지 않은 것도 있다. 이는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들인데 사진 속 실물 정보가 희미해서 확인 작업이 따로 필요하므로 잠시는 완성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아무렇게나 써넣을 수



도 있지 않는가는 물음에 강용씨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색해서 말했다. 역사의 복원에 있어서 사실 존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 강용씨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강용씨는 오랜 시간 공들여 그린 그림일지라도 그것이 사실과 어긋나면 가차없이 폐기처분하고 다시 그리는 솔직함과 막지 못할 소고집이 있었다. 몇해전 연길기차역 건물을 그릴 때였는데 당시 인위적으로 물감을 올린 연길기차역의 옛날 사진을 기초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벽체 벽돌색을 원 사진의 색처럼 빨간색으로 그렸다. 그런데 후에 역사적인 고증과 로인들의 증언에 따라 알고보니 당시 실제 연길기차역 건물은 회색 벽돌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강용씨는 잘못 그린 그림을 가차없이 폐기했고 다시 그림을 그렸다. 보다 실제에 가까운 그림을 창작

하기 위해 그는 사료들을 기초로 실물모형들도 많이 만들었다. 실물모형은 그림 창작에서 여러 각도의 시각적인 창작 공간을 제공하기에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했다.

“연변 교통의 역사를 알면 연변의 역사를 알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용씨가 교통에 집착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교통의 발전이 바로 한 시대의 발전과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한 지역 발전 변화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강용씨가 그린 그림들 중에는 특히 연변 8개 현, 시의 택시, 공공버스, 철도, 심지어 철도 종업원들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교통 관련 그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강용씨는 연변의 교통 역사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료해하도록 쇼홍쑤, 틱톡 등 여러 뉴미디어 플랫폼들에 계정을 개설하고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연변교통’을 선보이고 있다.

강용씨는 그림그리기 작업외에도 한가지 내용을 더 수집하고 있었다. 지난 2017년부터 소리(声音) 수집에 나선 것이다. 영화제작용 전문 녹음기재들도 구입했다. 길거리의 각종 소음, 차량의 흐름과 경적소리, 고속철의 움직임 등 그가 수집하는 소리의 세계 또한 다양하고 폭넓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골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듣게 되는 청각은 피와 살인 셈입니다. 소리는 사람들의 정감을 이끌 수 있는 묘한 매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노래나 음성을 들으면 귀마가 돌고 호기심을 느끼는 것처럼 특점이 있는 우리 시대의 여러가지 소리들도 시대별로 그 색깔이나 분위기가 부동하기 때문에 수집 가치와 의의가 있습니다.” 강용은 소리로 느껴보는 시대의 변화도 알고 보면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변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고 소리를 수집하기까지... 허다한 정력과 시간을 들이는 작업들이다. 강용씨는 이 모든 일들이 힘들어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해도 힘든 줄 모르고 항상 무한한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연변을 사랑하자면 연변의 재미있는 역사와 문화적인 부호들을 사람들이 먼저 알게 해야 합니다.” 강용씨는 아직 연변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르고 있는 젊은층들에게 연변의 재미있는 역사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아직 재미있는 추억과 이야기거리가 많은 50~60년대생들과 많이 교류하고 그들의 추억을 다시 90~00년대생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강용씨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연변교통’은 지금까지 이미 근 1,000 여편에 달하는 문자, 사진, 미니동영상 등 작품들을 ‘쇼홍쑤’와 ‘틱톡’ 등 강용씨의 자체 계정에 발표했다. 강용씨는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연변교통’ 관련 내용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타산임을 밝히면서 “연변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들을 담은 문화창작품들을 계속해서 창작하고 보여줌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연변의 역사를 알게 하고 연변을 관심하고 사랑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 안상근기자



청명의 유래와 풍속

- 신기덕 -

봄철의 청명과 겨울철의 동지는 명절이기도 하면서 절기이기도 하다. 청명절은 답정절, 행정절, 삼월절, 조상제사절 등으로도 불리는데 초기 인류의 조상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화민족의 가장 성대한 조상제사날이다. 청명은 자연과 인문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청명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청명절이 처음에는 단순히 절기의 이름이었고 그것이 조상을 기리는 명절로 바뀐 것은 한식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진문공(晋文公)은 한식절을 한식절보다 하루 빨리 듣거나 한식절과 같은 날에 듣기도 하였다. 청명은 원래 봄철의 특정 절기를 지칭하는 명절로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후 민간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등 역대 중화민족의 고정된 풍습이 되었다는 것이다.

청명절을 잘 료해하기 위하여 먼저 한식(寒食)절의 유래를 살펴 보도록 하자. 한식절의 유래는 기본상 하나로 모여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진문공과 개자추(介子推)의 이야기이다. 춘추시대의 인물인 개자추는 망명해있던 진나라의 공자 중이(重耳)를 위해 19년간 헌신했고 중이는 마침내 진문공으로 즉위했지만 개자추에게는 아무런 벼슬도 내리지 않았으며 공신통에도 개자추의 이름이 없었다. 분개한 개자추는 어머니를 모시고 먼 산으로 들어가 은둔했고 뒤늦게 이를 깨달은 진문공이 개자추를 등용하려 했지만 그는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했다. 진문공은 개자추를 나오게 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질렀으나 개자추는 끝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불에 타죽고 말았다. 그래서 개자추를 기리기 위해 그가 죽은 날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만을 먹는 한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한식절은 춘추시대 진나라의 명신이자 의사인 개자추를 기리는 날로 발전하였고 불을 금하고 찬 음식만을 먹기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4대 명절중의 하나로 당당히 자리를 굳혔었다. 청명절은 한식절보다 하루 빨리 듣거나 한식절과 같은 날에 듣기도 하였다. 청명은 원래 봄철의 특정 절기를 지칭하는 명절로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후 민간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등 역대 중화민족의 고정된 풍습이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명절은 하나의 절기에서부터 큰 의미를 지닌 봄철 명절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명절은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 이와 반대로 한식절은 오늘날 역사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청명절에는 그네타기와 연날리기 등 활동이 있다. 그네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처음에는 ‘천추(千秋)’라고 부르다가 껍껍직함을 피하기 위해 ‘그네(秋千)’로 바뀌었다. 연날리기는 청명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다. 청명날에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날리는데 연 밑이나 연줄에 색색의 작은 등들을 매달아 별처럼 반짝인다.

‘반 고흐 별하늘 예술 전시회’ 환상적



‘반 고흐 별하늘 예술 전시회’가 하북성 석가장시에서 열렸다. 전시에는 30여개의 테마 공간이 마련되어 관중들에게 아름답고도 환상적인 체험을 선사했다. 사진은 3월 17일 전시회에서 체험에 빠진 관람객들. / 신화넷

룡정시 제 7 진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간판 수여식

룡정시문화방송관광국은 일전 시군중문화예술중심 회의실에서 시급 제 7 진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항목 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 연변전력향식품유한회사, 연변해교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연변홍봉식품유한회사, 시문화관 등 관련 기업사업단위 책임자 및 관련 일군들이 수여식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시문화방송관광국 부국장 김광호가 ‘마른명태 제작 기예’, ‘조선족 가면무’ 등 7개 항목에 간판을 수여하고 제 7 진 시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항목 신청등록 사업 상황과 성과를 총화했다. 이로써 현재 룡정시 각급 무형문화유산 항목은 26가지로 증가했다. 이중에서 국가급이 1개 항목, 성급이 6개 항목, 주급이 15개 항목, 시급이 26개 항목이다. 이번 간판 수여식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성과의 전시와 견증으로서 룡정시의 대표성 무형문화유산 항목의 인을 작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 룡정문화라디오텔레비죤관광및체육국

◀ 연길방직공장 전경

▼ 옛 연길백주공장 정문 앞 풍경

